



보도 일시	2022. 4. 1.(금) 08:30	배포 일시	2022. 4. 1.(금) 08:30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희재 (044-215-2770)
		담당자	사무관 최문성 (moonsung@korea.kr)

##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 이역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1(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① 에너지·원자재 가격동향 및 대응(산업부, 제목만 공개)

② 가공식품·외식 및 주요 농축수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

(농식품부·해수부, 제목만 공개)

③ 통신분야(휴대전화료·휴대전화기) 물가동향 및 대응

(과기정통부·방통위, 제목만 공개)

###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담당 부서 <총괄>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215-2770)
		담당자	사무관	최문성 (moonsung@korea.kr)
<공동>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책임자	과 장	박덕열 (044-203-5230)
		담당자	사무관	이송이 (mushroom92@korea.kr)
<공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홍인기 (044-201-2231)
		담당자	사무관	남기현 (khnarn@korea.kr)
<공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선우 (044-201-2111)
		담당자	사무관	김준걸 (bluepine31@korea.kr)
<공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1811)
		담당자	사무관	이한병 (cloto001@korea.kr)
<공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담당자	사무관	김지현 (jiihyun77@korea.kr)
<공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책임자	과 장	이정순 (044-202-6650)
		담당자	사무관	손지수 (jisu1220@korea.kr)
<공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팀	책임자	팀 장	윤웅현 (02-2110-1550)
		담당자	사무관	이선희 (green11@korea.kr)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 경제충격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던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sup>1)</sup>(발생가능성이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만나  
에너지·원자재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심화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가상승압력을 경험하면서,  
2월 물가가 미국은 7.9%, 유로존은 5.9%,  
영국은 6.2%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주요국 소비자물가는 3~40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 중입니다.<sup>2)</sup>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상승률은 낮지만,  
5개월 연속 3%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압력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 ('21.9) 2.4 (10) 3.2 (11) 3.8 (12) 3.7 ('22.1) 3.6 (2) 3.7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직접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으며,

1) 英 이코노미스트紙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세계경제에 나타난 '블랙스완'이라 지칭

2) ①(美) 2월 7.9%['82년 이후 최고] ②(유로존) 2월 5.9%[통계작성<'97년> 이후 최고]

③(英) 2월 6.2%['92년 이후 30년만에 최고] ④(OECD) 1월 7.2%['91년 이후 31년만에 최고]

향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sup>3)</sup>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물가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부처별로 소관분야에 책임지고 수급·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는 등  
물가관리에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대응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4일에는  
경제부총리 주재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가계·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①유류세 인하(20%) 3개월 연장(~7월말), ②네온, 크립톤, 제논 등 할당관세 적용,  
③인도·호주산 밀 등 수입곡물 대체수입선 확보 등

오늘 회의에서는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①에너지·원자재 분야를 우선 논의하는 한편,  
②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③통신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과제들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경제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 OECD는 現 사태가 1년 지속시 세계경제 성장률  $\Delta 1.1\%$ , 물가상승률  $+2.5\%$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War in Ukraine: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nd Implications for Policy, '22.3)

## 【 1. 에너지·원자재 가격동향 및 대응 】

첫 번째 안건은 에너지·원자재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오름세를 지속해오던 에너지·원자재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4일) 이후 급등하면서 직접적인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평균 국제유가(두바이油, 3.30일 기준)는 111불로, 2월 평균 92불 대비 20.3%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월평균)도 전월 대비 리터당 200원 이상 큰 폭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高유가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물가관계장관회의(3.4일)에서 당초 4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20%) 기간을 7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국제유가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와 인하폭을 최종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가안정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등과의  
공조를 통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sup>4)</sup>하고,  
수급차질 발생시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비상시에 대비한 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자재 역시 당장의 수급차질이 우려되기보다는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고 있으며,  
이 영향이 향후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원자재 방출 등을 통한  
시장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2월 기준 총 방출량은 14,105톤으로,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했으며,  
특히 수입의존도가 높은 알루미늄은 107% 늘어난 11,073톤,  
니켈의 경우 94% 늘어난 93톤을 방출했습니다.

아울러 비축물자 방출시  
기업당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외상 판매한도도  
당초 30억원에서 50억원까지 늘리고,  
외상(15 → 18개월)·대여(9 → 12개월) 기간도 확대하는 등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원가상승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

4) 총 6,171만 배럴규모의 비축유 방출 합의, 우리나라 방출 규모는 442만 배럴 수준

이와 함께 정부는 주요 광물에 대한  
주요국과의 공급망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수급차질 우려가 고조되는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를 더욱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2. 가공식품·외식과 농축수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 】

두 번째 안건은  
가공식품·외식과 농축수산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입니다.

가공식품과 외식부문은 곡물가격 등 원재료비 상승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물가기여도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물가상승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sup>5)</sup>

이에 정부는 식품·사료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Delta 0.5\%p$ )를 통해  
원료상승에 따른 업계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한편,  
정부의 수입대두 가격 인상을 억제하여  
물가상승압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겔보리(4 → 25만톤), 소맥피(3 → 6만톤) 등  
사료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 확대,  
대두 수입권 공매 3월 조기 추진(평시 4~5월 → 3월)과  
사료용·식용 옥수수 대체입찰 등  
수급관리 지원을 위한 노력도 배가하고 있습니다.

---

5) 가공식품 물가기여도(%p): ('21.1Q)0.1 (2Q)0.1 (3Q)0.2 (4Q)0.3 ('22.1)0.4 (2)0.5  
외식 물가기여도(%p): ('21.1Q)0.2 (2Q)0.3 (3Q)0.4 (4Q)0.5 ('22.1)0.7 (2)0.8

이에 더해 국제곡물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신속 수입검사 등 다각적인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4월에도 할인쿠폰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마트 등 업체 할인행사를 계속 추진하여 서민층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한편, 농축수산물 품목별 시장동향을 보아가며

비축·방출 등을 통한 가격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명태 등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성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여타 수산물 전반으로 가격인상이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시 정부 비축물량을 적기에 방출하는 등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 3. 통신분야 물가동향 및 대응 】

세 번째 안건은 통신분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입니다.

그간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노력으로

휴대전화료 물가지수는 장기적으로는 하락추세<sup>6)</sup>에 있으나,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1인당 데이터 사용량과 5G 가입자 수 증가 등

지출증가요인이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용자 부담완화와 통신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

6) 휴대전화료 물가지수 추이: ('17) 108.8 ('18) 107.1 ('19) 103.6 ('20) 100.0 ('21) 101.2

정부는 단말기에 旣내장된 칩에 이용자가 QR코드 등을 통해 통신사의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형태의 eSIM 도입과 확산을 촉진하여  
알뜰폰으로의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통신사간 경쟁을 유도하고,  
듀얼심 지원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도 제고할 방침입니다.

금년 9월중 eSIM 서비스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상반기중 관련 제도<sup>7)</sup>를 정비하고 이동통신사 전산개발 등  
제반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취·창업에 필수적인  
데이터 이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5월말까지  
취업사이트 데이터 무과금, 데이터 추가 제공 등  
청년 맞춤형 데이터 프로모션을 지원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 알뜰폰 도매대가 추가 인하<sup>8)</sup> 등을 통해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저소득층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EBS 등 19개 교육사이트에 대한  
매월 6,600원의 교육컨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과  
장애인, 저소득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 지원 등  
취약계층 통신비 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7)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기준', '상호접속 기준' 고시를 4월중 행정예고 예정

8)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원/MB) 인하 추이: ('18) 3.65 ('19) 2.95 ('20) 2.28 ('21) 1.61



휴대전화 단말기의 경우에도  
저가 단말기 판매호조, 단말기 교체주기 연장 등  
최근의 가격 안정화 흐름<sup>9)</sup>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15 → 30%) 등  
단말기 구입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추진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소위 단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제류중)

### 【 마무리말씀 】

물가안정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이며,  
서민경제 측면에서도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교착상태 장기화 등  
물가를 둘러싼 제반 여건들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보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전부처가 합심하여 물가상황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논의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음주 3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4.5일) 계기로  
개최 예정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민물가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9) 가계통신비 중 통신장비 비용 추이(원): ('18) 35,223 ('19) 28,313 ('20) 27,189 ('21) 26,676